

강진 지난해 신규일자리 5509개 창출

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 발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강진군은 지난 1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의 발표에서는 강진군의 2019년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비대면 화상평가로 실시됐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9년 일자리 예산으로 총 39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5,509개를 창출해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 이에 2018년 대비 고용률, 고용보형 피보형자수, 상용근로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강진군은 민선7기 취임 1년만인 2019년 6월, 분양률 100%를 달성한 강진산단 완판 사례를 비롯해 가우도 일대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민간 산업자본 유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군은 2022년까지 더불어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업무 전반을 강화한다.

정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적 특성과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새 일자리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2년(2018년, 2019년) 연속 수상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강진산단 가동률 제고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무안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탄력'

내년 정부예산안 국비 1억 5000만원 반영

무안군이 추진 중인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이 국비가 반영되면서 순조로운 추진이 예고됐다.

2월 무안군은 지난 2월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을 신청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억 5000만 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무안군과 지역보훈단체가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무안읍 군립국악원 뒤편에 높이 17m의 석재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념탑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나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나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난임 진단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술비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에 걸쳐 각각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및 진단서 등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와 문자알림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는 정부24에서 출력 후 시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서철훈 기자

영암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체험 운영

코로나블루 '지친 마음에 꽃 피우다' 프로그램 전개

영암군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소소하지만 작은 정성들이 모여면 마음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지친 마음에 꽃 피우다' 프로그램을 8월 중순부터 개학에 들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잘 말려진 꽃들을 이용해 수틀에 꾸며보는 '플라워 수틀액자'와 투명한 풍선에 예쁜 소품과 자신을 응원하

는 문구로 꾸민 '커스텀 풍선' 만들기로 준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암중학교 청소년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조금 답답하고 심심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선생님이 학교로 직접 찾아오셔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블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470-1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순천 개별공시지가 열람 22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순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2,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m²당 가격으로, 지가 열람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민원실 방문 또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10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제·지방세 등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컨테이너항~섬진포구' 해양관광도시 밑그림 그린다

'섬진강 뱃길 유람선 운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



광양시가 해양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해양관광청사진을 차근차근 그려나간다.

시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해양관광의 밑그림이 될 '섬진강 뱃길 유람선 운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광양만 컨테이너항에서부터 섬진포구까지 총 길이 24km 구간의 개발 여건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구상 및 계획, 투자유치전략,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 등을 수립한다.

특히,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구룡산 권역 관광지 등 도심권과 연계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

안체험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의 참여와 체험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시는 시설 노후, 경관 관광 중심, 연계 프로그램 부족 등 국내 관광유람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양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특히, 유람선 구간 수심 확보와 광양항 인근 유람선 운항 가능 여부, 선박 선정 및 운영, 도선행위에 대한 제약 문제, 유람선 운항의 경제성과 지역관광자원 간 연계방안 등 주요 이슈를 도출해 실현 가능성 분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경쟁력이 높은 광양만과 섬진강을 연계해 새로운 해양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라며,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과 시행 가능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 "구룡산 관광단지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며 우리시 관광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테마파크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등 핵심 관광사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완공 예정인 짚트랙, 배알도 섬 정원, 섬진강골들마을 액티비티존 등과 시너지를 통해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행복도시

광양

광 양 시